

□ 성서연구 □

기독자가 정의(正義)를 말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 : 10

김창락교수(한신대, 신약학)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논쟁이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첫 장부터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를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정답보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 입장에서 있는 트라쉬마코스라는 제자의 주장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정의는 강자(强者)의 이익에 불과하다.” 즉 어떠한 체제의 국가에 있어서나 지배층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법률을 제정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피지배자들에게 정의로 선포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범법자 내지 부정한 자로 처벌을 하니 결국 정의는 지배층인 강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피지배층인 약자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작은 것을 훔치면 도둑으로 몰리고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면 유괴범으로 비난받지만은 나라 전체를 일거에 강탈하거나 국민 전체를 한꺼번에 노예로 만들 때에는 결코 그렇게 불리우지 않는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트라쉬마코스의 주장을 끈질긴 논박을 통해서 뒤엎는다.

트라쉬마코스의 견해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많은 현상의 진실을 폭로해 주기 때문이며, 둘째 정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소위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추구명에서 나올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 트라쉬마코스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바 있기 때문이다.

헬라인들이 정의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 반해서 성서에는 그것이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다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의 “의”는 헬라인들의 “정의”라는 낱말이다. 동일한 헬라어 낱말을 “정의”로 번역하느냐 “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된다. “정의”는 사회적·공적 규범인데 반해서 “의”는 개인적·윤리적 개념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역판 신약성서에는 이 헬라어 “디카이오쉬네”라는 단어가 단 한군데도 “정의”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대신 모두 “의”로 번역되어 있다(행. 17:31만 예외로서 “공의”로 번역되었음). 한글판 성서는 단 두 경우에만(행. 24:25; 히. 11:33) “정의”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서 기독자는 “정의”라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멀어진다. 더구나 기독교의 소위 의

인론(義認論)이라는 교설은 인간이 의를 어떻게 행하는냐는 문제를 배경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덧입혀진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구속론적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기독자로 하여금 의(義) 또는 정의의 내용과 실천 문제를 회피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서가 많은 곳(롬 3:5, 25, 26; 6:13, 18, 19, 20; 14:17; 고후 6:7, 14; 11:15; 엡 5:9; 6:14; 딤후 6:11, 22; 딤후 4:8; 히 1:9; 7:2; 약 2:20; 3:18; 벧후 1:1; 2:5; 3:13)에서 의를 정의로 고쳐 번역한 것은 이러한 기독교 일반의 맹점을 시정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이행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는 의는 이유대 교적·율법적 “의” 사상(義思想)을 다분히 대변한다는 것이 주석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어쨌든 의를 행하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이 상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기독자가 일반적으로 생각 하듯이 개인윤리적 또는 종교적 차원의 덕목(德目)이라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아무리 간악한 사회라 하더라도 윤리적 또는 도덕적 면에서 개인적으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악용할지는 몰라도 박해는 하지 않는다. 의를 위한 박해는 단순히 의를 수행하려는 데서 야기되는 불편을 뜻하지 않는다. 박해는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아니 약자의 권익을 위해서, 즉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기 때문에 강자로부터 받을 수 밖에 없는 손해와 고통이다. 12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정을 더 명백히 해준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들은 개인윤리적·종교적·도덕적 인격도야를 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 불의를 고발하고 약자를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배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자로 하여금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의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곧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회복해주는 사건이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기독자의 의무이며 축복이라고 증언한다.



□ 논 단 I : 가정의 민주화 □



가정의 민주화

박 영 숙 집사 (서울, 향린교회)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서 가정의 달이다. 80년도 이후의 5월은 4월에 이어 또 하나의 잔인한 달로 기록되면서 5월이 되면 민주주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가정의 민주화가 국가의 민주화와 교회의 민주화에 앞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는 첫 장소이며 최초의 인간관계의 훈련장소이자 죽을때까지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교회가 비민주적일 때 그 영향을 곧바로 받고 있는 가정의 민주화가 있을 수 없겠으나 인생의 첫 교육장인 가정이 비민주적일 때 역으로 국가와 교회의 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가정이란 영어로는 'home' 으로서 "어버이와 자녀들의 가장을 중심으로 한 모임", 또는 "집", "울안", 그리고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집은 사람이 거처하는 건물" 또는 영어의 'family'의 뜻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래불이의 한 때"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가족이란 "어버이와 자식, 부부등의 관계로 맺어져 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가정, 집 그리고 가족이 가지는 공통점은 혈연관계의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인간관계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면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다.

우리는 동양권에 살고 있으며 특히 유교적인 전통에 젖어 있다. 유교적인 사고의 중심은 가족이며 그 가족은 국가의 단위로써가 아니라 한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나라를 집의 확대된 형태로 간주해서 "국가"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우리는 가정을 말하기 위해서 가족제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가족형태는 사회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서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삼았던 농경사회에서의 대가족제도가 현대산업사회구조속에서는 불가피하게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 현상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인 대가족제도는 가족구성원보다 집이 중시되는 가족제도이다. 이 제도속에서의 개인은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상하의 신분서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계제도에서는 가계를 이어 나가는 남자중에서도 장자의

존재가 중시되며 혈연집단의 중심점으로서의 가부장의 권위와 권력은 지대했다. 그 앞에서의 나머지 가족의 위치는 장유유서, 남존여비, 그리고 부부유별사상에 의해 차별이 극심했다. 부자간에도 "효"라는 미명아래 절대복종이 요구되고 특히 여성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이렇게 철저한 상하복종관계로 개개의 가족구성원을 비인간화시키는 가족주의는 가정안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조직원리로 확산되어 활용되었다. 그것은 가부장이 가정에서 요구하는 "효"의 도리가 국가의 차원에서는 권력행사를 위해 "충"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었던 것이다. 자식의 편에서 스스로 부모를 섬기려는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절대복종의 상하관계는 원래 사랑의 관계인 가족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단위인 국가가 '민'에게 "충"을 요청하기 위해서 같은 질서로서의 "효"를 가정에 의무화 시킨 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우기 국가권력이 통치권의 확립을 위해 충효사상을 치리의 이데올로기로 악용한 데에서 가족주의가 버릴 수 없는 장점을 지녔음에도 오늘에 와서 전면거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가족제도는 현대산업사회의 특성들과 부합된다고 보는 핵가족형태이다. 부부중심의 이 가족제도는 현대인의 욕구충족에 알맞는 것으로서 생업에 따라 쉽게 옮겨다닐 수 있고 혈족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서 개인신장에 주력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현대생활이 가져다 주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식처의 구실을 한다고 일반은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제도는 자녀들의 균등한 재산상속과 자유로운 배우자선택이 가능해서 개개인의 자유가 억제된 대가족제도에서의 비인간화형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고도로 합리적인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간성은 핵가족 형태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보이는 핵가족제도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오늘의 제반 사회현상에서 우리는 그 징후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노인부양문제, 어린이양육문제, 그리고 파탄가정문제 등의 원인이 바로 핵가족제도가 가져다 준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종래의 대가족제도에서는 그나마대로 자체내에서 해결 내지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대가족제도에서의 가족구성원은 공

동체속에서의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지칭하는 일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우리는 영어의 단순한 “나”의 복수로서의 “우리”와는 다르게 “울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울안”의 개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가족제도에 있어서의 가족은 또한 내 것 네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서양과는 달리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심지어 자기의 남편을 우리 남편이라고 해서 서구인의 웃음을 사기로 하고 주체성이 희박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2

그러나 하나의 숙명체로서의 대가족제도의 가족주의가 혈족범위를 넘어 설수만 있다면 가족주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폐단은 물론 오늘날의 사회문제의 고질적인 현상의 중간이 되고 있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세계평화의 위협요인인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살피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의 우리 가정이 어느 한 제도의 영향을 구분해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의 대가족제도와 현대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의 이중구조속에서 상호간의 장단점의 상충으로 파생되는 모순과 부작용이 가정안에 많은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가족공동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이념으로서 인류역사를 통해 인간이 창출해 낸 최고의 것이라고 한다. 민주화된 가정이 바로 바람직한 가족공동체의 모델로서 가장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가정형태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에서 생겨진 권리개념으로서 원래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안에 어떤 구성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민주화의 문제제기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민주화문제를 말하는 것은 본래 사랑의 공동체이고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정도 개성이 다른 인간의 집단으로서 질서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적 질서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에 덧붙여서 인간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성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법으로서 방종과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질서를 지키려는 자신들의 법인 자율성을 신뢰하고 각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자율성이 보장되는 질서유지가 바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효제교수는 민주가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미국식 핵가족의 구조나 기능이 바로 민주적 가족의 모델이 될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족제도가 생활에서 민주이념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의 평등과 개별화를 전제하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결속하여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할

을 강조했다. 김주숙교수는 그의 이상적 가족 형성론에서 가족공동체만은 인간본위로 존속시켜야 한다면서 사회구조의 변화, 기계화, 비인간화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족집단만큼은 인간성을 유지하며 인간위주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 가족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가족공동체는 인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가정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주장으로 간주된다. 민주화될 필요성이 있는 가정은 이미 가정의 본성이 깨진 관계로서 사랑이 고갈된 권력단위의 화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민주주의가 권리개념이어서 사랑의 공동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이 필요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금도 가정안에서는 각 구성원이 한 인간으로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부부, 자녀, 혹은 형제라는 관계속에서 상하의 규율과 지배복종의 억압과 성별의 제약 등이 각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권리주장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오늘의 가정문제

가정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속담이 있다. 가족관제란 떨쳐버릴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에서 이런 속담이 나왔는지 모른다. 우리모두는 이 두가지 가능성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가정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찾으며 책임을 느낀다.

우리는 흔히 가족간의 긴장이나 혈연관계의 파탄이 가정의 경제적 빈곤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빈곤한 경제상황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경제권의 권리행사에서 파생된 신뢰감의 회손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것이 옳을 것이다. 어느조직에서나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동의 평가기준을 화폐화에 두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가 가정에도 파급되고 있다. 이것이 가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안에는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노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의 무형의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가사노동에만 묶어두는 성역할구분의 고정관념과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여성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해묵은 성차별의 잔재가 오늘의 가정의 민주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이며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보고 싶다.

또 하나 가정의 민주화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자녀들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강요되는 절대복종이란 점이다. 이것은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는 자율권과 위를 향해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언권을 모두 박탈해 버린 것이다. 대등한 인격으로서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으며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막고 있는 단절과 깨진 관계에서 생겨진 갈등의 해소

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악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자녀들을 방임 또는 과잉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직무유기와 맹목적인 사랑의 발로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예에서 자녀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들은 성년이 되면 그 굴레를 벗어난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딸은 계속 다른 형태의 구속을 받게 되어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길은 죽을때까지 막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가정의 민주화는 어떻게 성취하나? 이태영박사는 이러한 가정에서의 잘못된 사람차별이 관습과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까지 받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육되는 과정에서 불평등과 지배복종관계에 길들여진 사람이 어찌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가정에서 비롯된 문제이니 가정에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헌하면서까지 근거없이 가족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 가족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안타까워 한다. 물론 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뼈속까지 깊이 박힌 인간차별의 관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민주화의 생활화는 어렵다고 본다. 노동자 출신인 박노해시인은 그의 시 "이불을 껴매면서"에서 그가 어떻게 오랜 관습에서 눈을 떠서 인간으로 해방되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불 훌쩍을 껴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의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이에 방청소에, 고추장단지 뚜껑까지, 마무리 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달라 물달라 옷달라 시켰었다. 동료들과 노조일을 하고부터, 거만하고 전제적인 기업주의 짓거리가, 대접받는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자행되고 있음을 아프게 직시한다.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라고 세상이 가르쳐 준대로, 아내를 야금야금 갈아먹으면서, 나는 성실한 근로자였다. 노조를 만들면서, 저들의 칭찬과 표창장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편리한 이론과 절대적 권위와 상식으로 포장된, 몸서리쳐지는 이윤추구처럼, 나 역시 아내를 착취하고, 가정의 독재자가 되었다. 투쟁이 깊어 갈수록 실천속에서, 나는 저들의 짜거기를 배설해 낸다. 노동자는 이윤 낚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아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작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면서, 이불 훌쩍을 껴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게 되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적 관계를 가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로서 가정의 민주화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인간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아래 인간이 있는 잘못된 가정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적인 장치로서의 가족법개정도, 그리고 가족구성원 하나 하나의 권리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단. 그리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랜 잘못된 관습에서 새로 태어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민주시민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길러진 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의 무릎은 민주화된 무릎이 아니며 그들의 정규교육장소인 학교도 민주교육의 장이 아니다. 학교의 애국교회, 교련, 그리고 체육시간에 외쳐야 하는 "충효"경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고취되고 있는 "충효사상"이 우리나라의 제 2의 국시처럼 되어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민주헌법이 제정공표된 지 40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에 와서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그렇다고 그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는 민의 소리가 들리지 못하게 하는 언론자유와 봉쇄도 크나 큰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가 민주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가 민주정치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간의, 그리고 국가에서는 집권자와 국민간의 대화의 장이 무엇보다도 앞서 열려야 한다.

맺는 말

가정과 국가의 비민주적 현상에 교회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여성은 남성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성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의 머리수를 셀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권력은 하느님이 내리신 신성불가침의 것이다." 등등의 온갖 왜곡된 성서해석으로 하느님나라 도래를 지연시키는 일에 교회는 한몫을 크게 담당할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에서 보다 그의 제자나 주변기록에서 기독교인의 편의대로 말씀을 발췌한 데서 인간평등의 하느님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서를 바로 읽고 있는 이들이 교회의 여성차별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믿느냐고 묻는다. 또한 유대교가 어른의 종교로서 미성년을 여성과 싸잡아서 무시했던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선자리가 분명한가를 묻기도 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과 관습은 예외 없이 강자의 편에서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은 약자편에서 그들이 빼앗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주는데 있다고 믿는다. 한국교회는 오늘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전위대로서 모든 인간의 해방을 쟁취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약자의 편에서 야합은 두말할 것 없다. 가정의 민주화와 국가의 민주화, 그리고 교회의 민주화가 삼위 일체가 될 때 우리 인간은 참된 인간으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한다.